

<오래된 미래-라다크로부터 배운다> 저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57·사진) 여사가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 여사는 <오래된 미래>를 통해 티베트 불교문화를 근간으로 했던 라다크 공동체가 자본주의 유입으로 붕괴되는 과정을 그렸다. 다음은 12월 9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 내용 요약.

“생태 보존 사회운동과 연계돼야”

생태운동가 헬레나 호지 여사



▲방문 소감은? 한국을 처음 방문해 기쁘다.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진행 중인 개발 계획은 자연 뿐 아니라 인간을 파괴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이 중요한 것은 서구에 비해 전통적인 가정과

전통적인 의술을 가진 의사들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동맹을 만들어 지역공동체 가치를 소중히 발전시키는 데 관여하고 있기도 하다. 라다크 일부 사람들을 서구에 보내는 ‘실제체험 여행’을 통해 서구문화가 지상낙원이 아니라는 걸 체험시키는 일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서구 사람들을 라다크에 초청한 후 상호교류를 통해 ‘실제’를 확인시키는 일도 하고 있다.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가족이나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 우리는 자연에 둘러싸여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 가까

재생에너지 생산 몰두, 명상 통해 행복감

소농-소비자 연결이 사회문제 해결 열쇠

사회 등 과거 공동체의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생태운동을 사회운동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경우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에도 의존을 제기하는 사람이 30퍼센트 정도 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 만큼 강력하지 않다. 조만간 그들의 영향력이 커져 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생태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해운 일들은? 라다크에서 탈출시킨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은 공동체와 관계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이 자연과의 접촉이다. ▲라다크 종교 현황과 현대사회 문제 해결 방안은? 현재 라다크의 지배적인 종교는 불교다. 그러나 근대화된 경제가 직업의 희소성을 낳게 되었고 종교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농들을 지원해 도시의 소비자들에게 연결시키는 것이다. 소농들을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현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청소년이 세상을 바꾼다’ 공모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현성 스님은 내년 1월 17일까지 ‘청소년이 세상을 바꾼다’를 주제로 원고 공모전을 개최한다.



군불교위원회 상임회의 조계종 군불교위원회 위원장 성광 스님은 12월 18일 오후 3시 서울 조계종 포교원 3층에서 상임회의를 개최한다.



‘내 안의 평화...’ 주제로 강연 남원 실상사 주지 도법 스님은 12월 16일 광주 원각사에서 광주전남 불교연대 초청으로 ‘내 안의 평화, 세상의 평화’를 주제로 강연했다.



전북불교 대학인의 밤 전북불교대학 강건기 학장은 12월 13일 전주 갤러리아 웨딩타운에서 ‘제15회 전북불교대학인의 밤’을 개최했다.



일주 문



학회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우희종 교수가 12월 10일 제43차 연례 미국 세포생물학회에 논문 발표자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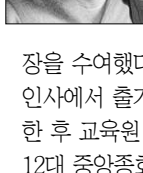
제4회 김동훈 연극상 수상 국악인 겸 연극배우 김성녀 씨가 12월 22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제4회 김동훈 연극상’ 시상식에서 연극상을 수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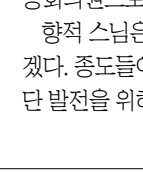
‘생활 속에서의 불교’ 강연 가수 김홍국 씨는 12월 17일 서울 강남 분은사에서 관음재일법회에 초청돼 ‘생활 속에서의 불교’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불교신문사장 항적 스님 “조계종 기관지 역할 최선”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불교신문사장에 항적 스님을 임명하고 12월 11일 임명을 수여했다. 항적 스님은 1950년 생으로, 해인사에서 출가해 67년 일타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후 교육원 교육부장관과 해인사 성보박물관장, 12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13대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항적 스님은 “기관지로서 제 기능을 하도록 하겠다. 종도들이 원하는 것이 반영되도록 하고 종단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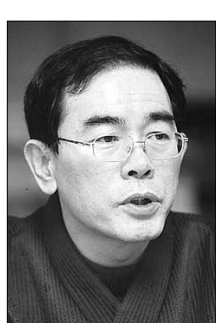


박관호 동국대 명예교수 별세 후학들의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5억원을 동국대에 기부했던 박관호 동국대 명예교수가 12월 9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79세.

“재가자 신행 한차원 높일 것”

‘우리는 선우’ 이사장 성태용 건국대 교수

“삶이 곧 수행현장이라는 투철한 결사정신으로 그동안 뿌리내려온 재가불자들의 신행 혁신운동을 한 차원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들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많은 불교 신행단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선우회관 건립과 몽골불교 지원, 불교인재 양성 등을 임기중 중점사업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월 6일 사단법인 제2대 우리는선우 이사장으로 취임한 성태용 교수(건국대 철학과·사진)는 취임 소감을 이같이 피력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진행해 온 재가불자 운동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새로운 방향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힌 성 이사장은 “4백여 회원들의 우리는선우에 대한 애정을 자발적인 참여로 이끌어 내기 위한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한편, ‘21세기를 이끌어가는 불교로 바꿔 나간다’는 설립이념을 보다 구체화 하는

은 “본인의 이사장 취임이 설립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불교계 단체들의 그릇된 풍토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전일 이사장의 노고와 변화를 바라는 회원들의 감동에 대해 활발한 활동으로 화답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수행환경 수호 프로그램 추진”

재가불자상 수상 정성운 불교환경연대 연구실장

“올해 불교발전에 기여한 재가불자에게 주는 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상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발한 한 해였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4대 종교 성직자들이 참여한 삼보일배 등 종교인들의 환경 참여 역량이 커진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12월 13일 종로웨딩문화원에서 열린 참여불교재가연대 총회 및 송년회에서 ‘올해의 재가불자상’을 수상한 불교환경연대 정성운 연구실장(41·사진)은 수상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정 연구실장은 새만금 삼보일배, 북한산 관동도로 저지 운동 등 2003년 불교계 최대 회두였던 ‘환경’에서 불교 대사회 참여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 연구실장은 2003년 환경 분야에 대한 총평을 부탁하자 “개발 논리에 의해 보존되고 지켜져야 할 것들이 철저히 지

문제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개인적으로 결심하지 못해 인력난이 가중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향후 계획으로 정 연구실장은 “산을 지키고 수행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의식들을 지속·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본지 남동우 기자 불교기자대상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김원우)는 12월 8일 송현클럽에서 불교기자대상 시상식 및 불교인권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불교기자대상(선원빈 기자상)은 <현대불교> 남동우 기자가 수상했다. ‘천성산 지킴이’ 지울스님(내원사 산간)에게는 공로상이 주어졌다.

성북구청 불교단체 합동 송년법회



서울 성북구사암연합회(회장 호암)는 12월 10일 동명웨딩타운에서 성북구청 법륜회, 성북경찰서 성불회와 공동으로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대성사 정성스님을 비롯해 서찬교 성북구청장, 박상용 성북경찰서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기초교리 강좌 수료·수계법회



광주 여의산 무각사는 12월 10일 대웅전에서 기초교리 강좌 3개월 과정 수강생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기 기초교리 강좌 수료 및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사 광민 스님은 “언제 어디서든 자랑스런 불자로 살아갈까 바란다”며 초발심을 강조했다.

삼매체험 선 수련회 안내

- 불교를 바로 알고 참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한 -

문답식 법문으로 현상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발심을 촉발시킨다. 진취적인 수행관으로 직관수행의 길로 인도하며 동중선으로 바로 들어가는 수행 (중도 공해탈 열반 깨달음 연기 등을 해득한다)

특징 - 5일동안 수행으로

- 1)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심오한 조사선 수행을 접할 수 있다.
- 2) 모든 업장과 습기를 뛰어넘어 곧 바로 당체를 관조하여 단박에 수행에서 뛰어넘는 직관수행의 길에 바로 나아가는 체험
- 3) 모든 사람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무지와 미혹의 맹목적인 삶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된다.
- 4) 불교를 바르게 알고 깨달음과 해탈의 삶에 다가간다.
- 5) 기복과 타력신앙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 6) 그릇된 종교생활을 벗어나 올바른 불교관을 찾을 수 있다
- 7) 생활에서 수행을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동중선에 든다.

홈페이지 www.wmsonwon.net (wm선원닷컴)

대상및인원 · 성인 남녀 70명

수련일정(4박5일) · 1차: 12월 24일 ~ 28일 · 2차: 12월 31일 ~ 1월 4일

접수 · 2003년 12월 20일 까지 선착순 마감.

회비 · 10만원(후원회비) 생계가 어려운 자는 무료 수련이 가능한.

접수처 · 온라인입금 : 농협 953-17-000706(예금주-원명선원)

☎ 064-755-3322 전승 : 064-755-0880

제주시 화북1동 4684번지 조계종 한라산 원명선원

자성불 열린도량 원명선원

불교성지순례 (주)실크로드여행사

15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곳!! 인도 실크로드와 함께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도성지순례 10일(불교8대성지) 1,890,000원

▶일 정 : 델리-기원정사(금강성설법지)-카필라성(부처님 고향)-룸비니(탄생지)-쿠시나가르(열반지)-바이살리(유마경설법지)-나란다대학-라즈기르(법화경설법지 영축산, 죽림정사)-모드가야(성도지)-바라나시(간지스강, 초전법륜지 녹야원)-상카시아(도리천에서 하강하신곳)-아그라(타지마할, 아그라성)-델

인도, 네팔성지순례 15일(불교8대성지와 아잔타석굴) 2,570,000원

▶일 정 : 룸바이-엘로라석굴-아잔타석굴(세계불교미술의 보고)-산치대탑(아소카대왕의 결작)-아그라(타지마할, 아그라성)-상카시아(도리천에서 하강하신곳)-바라나시(간지스강, 초전법륜지 녹야원)-모드가야(성도지)-라즈기르(법화경설법지 영축산, 죽림정사)-나란다대학-바이살리(유마경설법지)-쿠시나가르(열반지)-기원정사(금강성설법지)-카필라성(부처님 고향)-네팔국경통고-룸비니(탄생지)-포가리(안나푸르나 등 히말라야산맥)-카투만두

인도문화탐방 10일 (인도의 문화유적을 찾아서) 1,990,000원

▶일 정 : 델리-자이푸르(라즈스탄사막지방 핑크빛 고도)-아그라(타지마할, 아그라성)-카슈미르(원두조각 예술의 묘지)-알라하바드-바라나시(간지스강, 녹야원)-델리(국립박물관)

미얀마 성지순례 6일 1,590,000원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양곤 ※ 2월 10일 출발

중국불교 4대 명산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황주, 5일 850,000원 ▶관음도량 보타산, 황주, 상해 5일 790,000원 ▶구화산, 보타산, 황산, 영파, 상해 3일 1,150,000원 ▶보현도량 이미산, 낙산, 성도 5일 850,000원 ※ 10명이상 매일 출발 가능